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5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 9.(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5. 9.(목)		담당부서	기계융합산업표준과	
담당과장	정민화 과장(043-870-5370)		담당자	서상헌 연구사(043-870-5377)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시스템 국제표준화 착수 - 「제4회 전기차 국제표준포럼」 개최 [5.9.(목)]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월 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기자동차 차세대 고속 충전방식의 국제표준 진행상황 및 기술 동향을 업계에 전파하고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기차 국제표준 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4회 전기차 국제표준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9. 5. 9(목) 14:00~17:40, 제주국제컨벤션센터(한라홀B)
- 주최 : 국가기술표준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자신문
- 참석자 : 자동차 업계, 충전기 업계, 표준 전문가 등 약 150명

- 포럼에는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BMW, 테슬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충전기 보급을 위해 결성된 차데모협의회, 국제 전기차 충전협의체(CharIN**) 등의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전기·전자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담당

** CharIN(Charging Interface Initiative EV) : 콤보방식의 전기차 충전을 확산하는 단체

- 또한, 동 포럼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전기차 선도국의 전기차 충전 표준화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국표원은 국제표준 진행상황 및 충전시스템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2020년중 전기차 고출력 충전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현재, IEC는 전기차 충전 관련 국제표준을 21개 제정하였으며, 26개는 개발중에 있다. 이 중 한국은 2개의 국제표준을 제안해서 개발 중이며, 향후 1개의 국제표준을 추가로 제안할 계획이다.

- 이번 포럼을 통해 전기차 급속 충전방식에 대한 국제표준화* 및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완충 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의 경우 충전시간을 현재 약 80분에서 약 12분으로 단축하는 표준안을 논의하였다.

* 급속충전방식 국제표준(4종류) : ①콤보1, ②콤보2, ③차데모, ④GB/T



- BMW는 유럽, 미국, 한국에서 콤보방식 충전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시, 향후 350kW급 이상 콤보방식의 표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차데모협의회는 차데모방식과 콤보방식의 급속 충전시스템에 대해 비교 설명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사용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차린(CharIN)은 고출력 콤보방식의 보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출력 전용 소켓/케이블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트럭, 버스, 중장비, 선박 등에 적용을 위한 1~5MW의 초고속 충전 표준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기술개발 및 고출력 충전 표준 대응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고출력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전기차 충전 관련 KS 표준화 현황 및 고출력 충전 관련 표준화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 국토원은 금번 포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기차 고출력 충전방식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인 바, 충전시간 단축을 통해 정부의 2022년 전기차 43만대 보급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완성차, 충전기 업체 및 시험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기차 관련 국제표준 제정에 나서는 한편, 고출력 충전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KS)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현 연구사에게 (☎ 043-870-53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 4 회 전기차 국제표준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9.5.9(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B
- 주 최 : 국가기술표준원/제주특별자치도/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주관 : 자동차공학회, 스마트그리드협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자신문

시 간	발 표 제 목	발 표 자
13:30 ~ 14:00	등록	
14:00 ~ 14:05	축사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글로벌홍보총괄 (Gabriela Ehrlich)
14:05 ~ 14:10	축사2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이상훈 국장)
14:10 ~ 14:20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14:20 ~ 14:50	콤보 충전 기술의 로드맵 및 개발방향	독일 BMW (Michael Schwaiger)
14:50 ~ 15:20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 미래동향 및 방향	미국 테슬라 (Sean Lui)
15:20 ~ 15:50	전기차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일본 차데모협의회 (Takafumi Anegawa)
15:50 ~ 16:00	Break Time	
16:00 ~ 16:30	CharIN 콤보 충전 시스템 - 단일 충전 표준의 필요성	CharIN 아시아 (Jacques Borremans)
16:30 ~ 16:50	한국의 고출력 충전 현황	현대자동차 (정승면)
16:50 ~ 17:10	한국의 전기차 충전 표준화 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이현기)
17:10 ~ 17:15	장내 정리	
17:15 ~ 17:40	주제 토론 (전기차 초고속 충전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발표자
17:40	폐 회	